



이슈브리핑

제17호

www.ggpi.or.kr

발행일 | 2021. 01. 11.

발행인 | 이희영 발행처 | 경기도공공보건복지지원단 TEL | 031-738-0280 FAX | 031-738-0287
(136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특별기획 1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취약성 : 도내 보건의료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집필인 | 김자영 한진옥 신소을 이예지 서수인

경기도공공보건복지지원단 공공보건의료 조사연구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특별 방역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대부분의 대면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은 기저질환이 있고,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아 원래도 취약한 집단인데, 불가피한 서비스의 중단은 취약한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센터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간략히 정리한 결과를 본 이슈브리핑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2021년도까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고의 결과가 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01 들어가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수도권 2.5단계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하고, 공간의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대면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불가피한 경우 중단되는 사례들도 발생하

! 참조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02.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29일, 정례브리핑)

2)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0)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연구

곤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은 기저질환이 있고,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아 건강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의 불가피한 중단은 취약한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년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연구>²⁾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도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센터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과 다양한 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서비스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심층인터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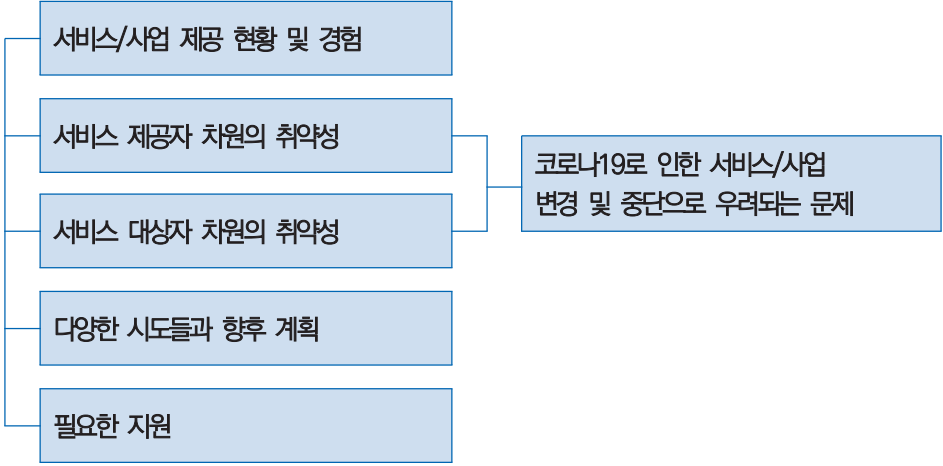
- **목적** 도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센터들을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업 추진 현황 파악
 - (2) 코로나19 시대의 사업 방향 모색
 - (3) 각 기관/센터의 어려움과 다양한 시도 등에 대한 경험
- **대상** 도내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의 제공 기관. 총 참여 기관의 수는 11개(광역 단위 7개 기관, 시군 단위 4개 기관)
- **기간** 2020년 10월 중순~11월 중순
- **방식** 대면 인터뷰(기관/센터 사정에 따라 Zoom 화상회의, 유선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함)
- **내용** 기관/센터 사업별 운영 현황, 서비스와 서비스 대상자의 취약성, 기관/센터의 취약성, 코로나19 이후의 방향성, 필요한 정책 지원 등
 - ※ 심층인터뷰 질문지의 일부는 ECDC 문헌을 참고하였음

참고문헌:ECDC(2020.07.03.), Guidance on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med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in EU/EEA countries and the United Kingdo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02 심층인터뷰의 결과

도내 11개 기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현황 및 어려움,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

※ 본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요약 및 일부 대표 사례를 발췌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서비스/사업 제공(진행) 현황 및 경험

현재 도내 기관/센터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변경된 형태 등으로 서비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작된 사업들이 존재하였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문형 서비스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중단되었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형 및 강의형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표1 서비스/사업 제공(진행) 현황 요약

분류		중단	대상자/규모 축소	사업내용/방식 변경	지속
방문형 서비스		○	○	○	
사례관리/상담				○	○
참여형	참여형	○	○	○	
	입소형		○		○
	강의형			○	
비용지원					○
홍보/네트워크		○ (대부분 중단)		○	
모니터링/평가				○	○

※ 신규: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등

※ 되도록 공통되는 사업 및 서비스 위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임

(2) 서비스 제공자 차원의 취약성

센터 자체의 취약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센터/지원단의 종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는 업무량 증가, 인력 부족, 심리적 부담감, 감염관리의 어려움,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업 수행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은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는 기존에 현장에서 진행하였던 교육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동되면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거나, 방역 관련 업무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증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면 사업보다 준비과정이나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도 해서요.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정리해서 업로드까지 필요하고요. 물품 배송이나 출석체크, 출석독려 같은 업무까지 보이지 않게 준비 과정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사업방식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센터의 역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므로 기관마다 상황에 편차가 클 수 있었다.

“교육 담당 선생님이 카드 뉴스까지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동영상 작업까지 모두 하고 계세요.

이런 새로운 비대면 사업들의 경우에는 개인 역량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자체가 이런 개인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서비스 차원의 취약성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진행사업과 관련하여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비대면 사업으로 인한 어려움, 대상자의 감염 두려움으로 인한 사업진행 어려움, 공간활용의 제약, 감염업무 투입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현재는 기존의 대면 사업이 대부분 비대면 사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비대면 매체 생성 자체가 어렵거나,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하되거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나 교육을 진행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승인 과정 같은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결국 진행을 못했고, 온라인 교육용으로 비대면 매체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되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체험형이나 운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정확한 동작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원래 제공하던 서비스는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코로나쪽 업무를 맡았죠. 해외입국자, 역학조사, 선별진료 같은
업무를 다 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저희 원래 대상자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연락도 제 때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너무 바쁘고요.”

거버넌스 등 기타 차원의 어려움

앞서 언급한 서비스 제공자, 센터의 차원을 넘어 외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관련 어려움이나 행정상의 어려움, 새로운 아이디어 부족

등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되었다. 특히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의 감염관리 지침 적용이 어렵거나,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용 어려움, 행정 칸막이 등이 존재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중앙 지침을 다 적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지금보다 더 넓은 장소에서 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관공서 같은 장소도 대여하기도 어려워니... 지침을 적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죠.”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밴드 라이브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평가방식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평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2 서비스 제공자 차원의 취약성 요약

구분		내용
서비스 제공자	센터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 증가 • 인력 부족 • 심리적 부담감 • 감염관리의 어려움 • 개인역량 바탕 사업 수행
	서비스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사업으로 인한 어려움 • 대상자의 감염 두려움으로 인한 사업진행 어려움 • 공간활용의 제약 • 감염업무 투입으로 인한 어려움 • 프로그램의 소극적 운영
	거버넌스 등 기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관련 어려움 • 행정상의 어려움 •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3) 서비스 대상자 차원의 취약성

해당 부분은 현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게 되었던 부분으로, 직접적인 감염 두려움, 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인한 어려움, 지속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두려움으로 외부 방문, 대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거나, 감염 위험이 적은 방식(비대면 상담 등)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 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단순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사례관리를 받기가 어렵거나 반드시 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취약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다.

“비대면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정신이에요.
대면을 해야해요. 하다못해 눈이라도 마주쳐야 하더라고요.
근데 (휴대폰 등) 화면 상으로 하게 되면, 눈을 피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면 확실히 소통이 안되더라고요. 화면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로 사례관리를 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게 굉장히 부적절한 분들도 계시고,
몸이 정말 안 좋으신 것 같은데도, 좋다고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 이 분이 진짜로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직접 확인이 필요한거죠.”

(4)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사업 변경 등으로 우려되는 문제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상태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도 단절된 상황에서는 감염 위험 자체는 줄일 수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인터뷰 시점에서는 직접 지표로 측정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대부분의 기관/센터에서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 내원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방문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복지관 등)들도 문을 닫아서
외부 활동이 없어지신 상황이죠.
아무래도 계속 집안에만 있다보니 우울감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상자 분들이 운동 자체를 못하는 경우에는
근육이 약해질 수 없다보니 낙상 위험이 올라간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치신 경우도 있었고요.”

(5) 다양한 시도들과 향후 계획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관/센터 차원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서비스 대상자 유형에 따른 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경험 공유 및 서비스 제공, 직원 대상 소진 프로그램 운영, 대규모 행사 방식 전환하여 진행 계획 등이 있었다.

특히 교육의 경우,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나, 일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대면 서비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관리가 필수적인 대상자들의 경우가 대면 서비스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선으로 일주일에 1~2번씩 운동 프로그램 과제를 드리면서,
SNS, 밴드 등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유선으로 힘들어서 대면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1:1이라도 교육 같은 걸 대면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와 달리 청소년 등과 같이 온라인 접근성이 좋은 집단에 대해서는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므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기관에서는 연락이 많이 와요.
주로 온라인 교육을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것 같아요.
중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려고요.”

대규모 인원이 모이게 되는 행사들은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전환하여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었다.

“매년 세월호 참사 주기가 되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엄마랑 함께하장’ 플리마켓 행사를 진행했어요.
유가족들이 만든 공예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행사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
‘4·16 기억 전시회’ 형식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6) 필요한 지원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보았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려진 건강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감염/방역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아예 중단하는 것이 손쉬운 대안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는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증정신질환자, 노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에서
재난은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판단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보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걸 선호하죠. 그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럼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욱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더욱 촘촘히 사례관리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죠.”

이를 위해 안전하게 만나기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고, 행정절차의 완화, 현실적인
 지침 개정 등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상황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소통의 창을 마련하거나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
 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관련한 가이드를 내려주시면 좋는데, 사실 없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면, 관내와 다른 시군에 다 전화해요.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다수가 시행하는 운영 정도에 따라
 그때그때 상의해서 정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일이더라구요.
 이제는 소규모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각자 하게되더라구요.”

여기에 올해 많은 기관/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의
 상황 해결을 위해 인력 및 환경 구축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요소로 파악된다.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하는 경우가 그래요.
 사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앙 단위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주면,
 퀄리티도 좋고 전문가가 제작해주니 좋잖아요. 소모적이지 않고..
 직원들도 훨씬 전문적인 영역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은 각개전투를 해야하니까,
 다양한 부분에 재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버틸 수 없게 되어버린거죠.
 개인의 역량으로 센터를 운영해야하는 이런 일들이 맞나 고민이 돼요.”

표3 **필요한 지원 요약**

구분	내용
필요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가려진 건강문제의 중요성 인식 필요 ● 안전하게 만나기 전략 개발 ● 거버넌스 구축 ● 행정 절차 완화 ● 현실적인 지침 개정 필요 ● 인력 및 환경 구축 필요

03

나기며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센터의 사업 현황 및 어려움,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 비록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일부 기관/센터의 참여를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입장을 포괄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려졌던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게 된 상황에 대해 기관/센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서비스 제공자 개인, 혹은 기관/센터 차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다 안정적인 사업/서비스 진행을 위해서는 경기도 및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2021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첫째,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예방만큼이나 평소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필수의료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한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모두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지원조직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많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춰졌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는 많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보건의료지원조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자원정책들이 속히 마련될 수 있길 바라본다.

06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02.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29일, 정례브리핑)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0)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연구

ECDC(2020.07.03.), Guidance on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med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in EU/EEA countries

and the United Kingdo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guidance-medically-and-socially-vulnerable-populations-covid-19>

바쁘신 시간에도 심층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신 여러 지원단과 센터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견을 나눠주신 지원단과 센터, 보건소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많은 기관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해당 내용들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나누고자 [이슈브리핑: 코로나19 특별기획]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www.ggpi.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기획 1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경기도 병상 현황
특별기획 2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특별기획 3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특별기획 4	신종감염병 대응에 있어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국내외 사례
특별기획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측정: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기획 6	코로나19 대비 병상자원 추정 및 확보를 위한 노력들
특별기획 7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우선순위 요구도 분석
특별기획 8	코로나19감염병 위기에서 경기도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안전망역할을 수행하였나?
특별기획 9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의 실천과 효과,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
특별기획 10	코로나19 시대의 취약계층 현황, 그리고 지원을 위한 액션플랜
특별기획 1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취약성



해당 이슈브리핑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인 | 한진옥(조사연구팀 책임연구원) 문의 | 031-738-0281